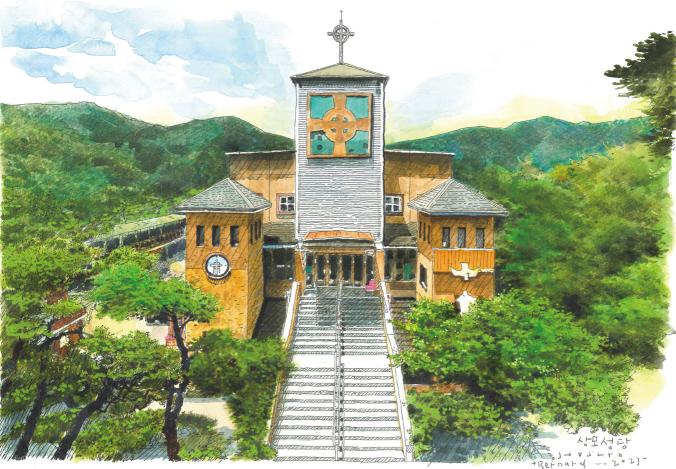


전교로 하나 되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친교로 하나 되어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2023. 12. 17. (나해)** 제2406호







5대리구 상모성당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서로12길 20 문의 | 054)465-3535 홈페이지 | http://www.sangmo.org 임은공소로부터 시작하여 2002년 6월 28일 신평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를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구미 상모동, 사곡동, 임은동, 오태동 일부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 1 독 서 이사 61,1-2¬.10-11

화 답 송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제 2 독 서 1테살 5,16-2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 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요한 1,6-8.19-28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당신은 누구요?



대안교육기관 꿈못자리 기관장 | 김민수 레오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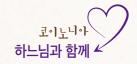
"당신은 누구요?"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자리거나 자신의 직업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거나, 또 자신의 말과 행동의 이유를 밝혀야 할 때,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적당한 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상황에서 받게 되는 질문이지만 그 답은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세상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림 시기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면서 스스로 회개하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질문할 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답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요?"라는 질문의 모범적인 대답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요한의 답은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라고 대답합니다. 요한의 이 대답은 요한의 정체성과 전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요한의 삶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바로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증언의 소리로써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온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을 본받아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인식하며 대림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자선을 베푸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고 그분을 향해 나의 온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대림 시기 우리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길 희망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기를 또한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요?"라고 질문할때 서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墨麗



12월 21일 크리스마스

교구 문화홍보국 차장 | 이재근 레오 신부

"메리 크리스마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설레게 만드는 따뜻한 말이다.

오늘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맞이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그 해 크리스마스는 우리 가족에게만 12월 21일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국군수도병원의 사무직원이셨다. 군 병원 중 가장 큰 곳이다 보니 심하게 다친 군인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들어오는 곳이었다. 당시 엄청난 신앙심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들어오는 병사들과 장교들을 위해 매번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셨다. 그러다 보니 친하게 지내게 된 병사들과 장교들이 꽤 있었다.

12월 21일 저녁이었다. 평소 퇴근시간이 저녁 7시인 아버지께서는 그날따라 9시가 넘어 들어오셨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 손에는 조그마한 크리스마스트리와 장식에 사용될 전구들이 들려있었다. 24일 밤 우리집 거실을 밝혀줄 용도였다. 늦은 저녁을 먹은 후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친하게 지내던 병사가 오늘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병원 영안실에 있다가 지금 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나와 동생에게 군인 아저씨를 위해 잠시만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아팠다. 하늘 나라에 간 그 아저씨 때문에 아팠고 슬퍼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는 게 아팠다. 부모님 마음을 안 아프게 해 드리고 싶었다. 바로 그때, 크리스마스가 떠올랐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래서 동생과 나는 아버지가 사 오신 크리스마스트리에 전구를 두르기 시작했다. 동생에 비해 미적감각이 떨어졌던 나는 미적감각이 훌륭한 동생에게 모든 것을 전담시켰고 마지막 스위치는 내가 켰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정일보다 4일만 빨리 와 달라고 기도했다. 우리 가족은 지금 당장 아기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엉성한 트리와 불빛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캐럴을 들었다. 시끌벅적하고 선물이 가득한 크리스마스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행복하게 변했던 모습은 확실히 기억한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12월 21일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모든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다. 다가올 성탄절에도 예수님은 아기가 되어 우리 마음에 오실 것이다. 어쩌면 우리를 위해 4일 빨리 오실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길 바라며,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교황, COP28 "전 지구적 생래 회심 필요... 지금 모두 동참해야"

바티칸 소식

2023년 12월 3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재협 신부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AFP or licensors)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교황계정을 통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COP28)에 보내는 연설문을게시했다. 교황의 연설은 교황청 대표단으로 두바이에 참석한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대독했

다. 교황은 12월 1~3일 COP28 참석 예정이었으나 급성 기관지염으로 불참했으며, 현재 회복 중이다. 교황은 지난 12월 3일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열린 삼종기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두바이 COP28에 동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했다. 또한 이번 국제회의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 세계적 행동양식을 촉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황은 이 같은 내용을 이미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를 통해 호소한 바 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의 상황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구체적인 정치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지금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COP28에 참석한 각 종교 지도자들은 12월 3일 "상처 입은 우리 세상을 치유" 하기 위해 여러 종교가 힘을 합칠 것을 다짐하는 성명을 함께 발표했다. 당초 교황은 COP28 셋째 날 직접 연설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불참할 수밖에 없게 되자 파롤린 추기경이 둘째 날 대독한 연설 중 특정 내용을 삼종기도 말미에 다음과 같이 되풀이했다.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인 배타주의와 민족주의의 편협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구습은 착취와 탐욕을 부추기며 인간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한다.

"공동의 전망을 포용하고 지체 없는 전 지구적인 생태적 회심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포용하고 맞아들입시다

교황은 또 삼종기도 말미에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더 많이 포용해야 할 공동의 노력도 강조했다. 교황은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포용하고 맞아들이는 것이 더욱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라고 말했다.

"가정, 본당, 학교, 일터, 운동경기 등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이가 고유한 자질과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배웁시다. 그 누구도 배제하지 맙시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5년**

付付补 显礼 至付

4월 8일 목요일

주교관 뒤쪽에 울타리 치는 일이 오늘 끝났다. 우리는 우리가 길을 바꾼 것으로 인해 우리와 어려움이 생길지 모를 이웃 개신교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었다. 나는 묘지의 인가를 받기 위해 곧 교섭을 벌일 것이고, 필요한 땅을 매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로 신부가 묻힌 땅은 그를 부산에서 이장한 후에 생긴 묘지법 조건에 맞는 것은 아니다.

4월 11일 일요일

카닥스 신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는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야영지를 떠나서 하노이 병원에 있다고 한다.

4월 14일 수요일 성 유스티노 첨례

신학교에서 주교미사를 드렸다.

4월 15일 목요일

신학생들이 휴가를 떠났고, 샤르즈뵈프 신부는 파리 신학교로 보내는 위임장을 뮈텔 주교에게 갖다 주기 위해 서울에 갔다.

4월 16일 금요일

미알롱 신부가 서울에서 왔다. 그는 6개월간 소집이 연기되었고, 10월 15일에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4월 19일 월요일

피정이 시작되었다. 모두들 왔다.

4월 25일 일요일

주교 집전 미사로써 피정이 끝났다. 샤르즈뵈프 신부의 사제 서품 은경축을 축하했다.

4월 27일 화요일

제주도의 신부들밖에 남아있지 않다. 라르쿠 신부는 대구에서 상고한 제주도 묘지 소송 때문에 일본인 변호사와 혐의 중이다.

4월 29일 목요일

신학생들이 돌아왔다.

출처: 가톨릭신문사 창간 60주년 기념자료집 『드망즈 주교 일기』(1987)

제40회 자선 주일 담화

자선 주일은 국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규만 주교의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 공식후원회

밀을회

|문 의 | 422-3411

| **후원계좌** | 대구은행, 069-10-000445 예금주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밀알회」는 결핵환우들의 재활과 복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故김동한(가롷로) 신부님(故김수환 추기경님의 형님)에 의해 1977년 7월 15일에 대구결핵요양원의 후원모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40여 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천주교대구대교구 사회 복지회 공식 후원회로서 국내외 약 1만 5천 명의 후원자분들의 정성으로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122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12월 성탄의 기쁨이 있는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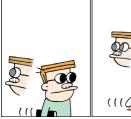
생대적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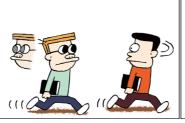
- 평화 고리 기도에 통참(JPIC)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 농어민사목부 제공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박성규 엘리지오









어려운 이물에게 따뜻한 관식을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18일(월) 11:0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21일(목) 10:00 평화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8일(월) 11:00 계산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3일(토) 11:00 피정의집 성당
포항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8일(월) 11:00 죽도성당		

수도회 | 피정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성탄 전례 청년 피정

기간: 12.23(토)~25(월) / 2박 3일 장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대상: 40세 미만 미혼 자매 누구나 문의: 김토마스 수녀, (010)9353-1773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기간: 1.6~8 / 1.12~14 / 1.19~21 1.27~29 / 2.3~5 / 2.14~16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 한라산눈꽃산행: 1.20~22 / 1.26~28 2.2~4 / 2.17~19 / 2.25~27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 2일: 2.24~25(시작 14:00, 마침 14:00) 2박 3일: 1.12~14 8박 9일: 6.23~7.1 / 8.5~8.13

장소: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신청: (031)321-9054 / (010)4154-0885

일반 알림 | 기타

예수회센터 1월 개강 동영상 강좌

신유박해를 바라보는 여섯가지 시선 : 소진형 박사

이미지를 이용한 기도 방법: 배영길 신부 수도사들의 화가 수르바란: 김현직 신부 문의: http://center.jesuits.kr/

티없으신마리아 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첫모임: 12.28(화), 꾸르실료 교육관 대상: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 신자(나이는 상향가능) 문의: 담당수녀, (010)2607-6324 대구지부 회장, (010)9870-4849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심화: (월) 지혜문학 10:00, 19:30, 복음서 14:30

일반: (화) 역사서, 예언서 10:00, 19:30 (수) 모세오경 10:00, 19:30

(목) 서간 / (금) 복음서 10:00, 19:30

문의: (010)8750-6573 / (010)2770-4627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내과, 이비인후과,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문의: 320-2120 / (010)7372-0076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16(금) 튀르키예, 그리스 / 440만원 3.4(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 435만원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제주도 관광 안내

제주운전기사회는 가족, 단체, 골프 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장소: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오사카(3박 4일)

비용: 120만원

문의: (010)3645-9028

도앤김읍내과 혈액투석 주·야간투석 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림(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완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안과수술전문 / 드림렌즈 / 건조증레이저

🥂 나스(NAS)간호학원

국비지원 | 간호조무사

이형우(미카엘) 구효정(율리아)

1544-8897

포장이사,일반이사,사무실이사,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요 안 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4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곽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건축공사/토목공사/종합건설업

[주] <mark>가우디 건설</mark>

대표이사 권장호 (미카엘)

053) 763-8395 010-2509-6624

김정범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전문의 김정범(대건안드레아) 동산병원 정년퇴임 우울증 [불안장애(공황전문)] 불면증 청라언덕역 9번 출구에서 동산병원 방향 도보 4분

당다한국국 9년 출구에서 중천당권 당당 도로 4군 대구시 중구 달성로 26 | 2F ☎ 053-253-0600 P 동산병원 주차장 이용 가능

방역소독<mark>(24시 긴급출동)</mark> 청소, 에어컨·물탱크청소, 경비

(쭈)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전순례(비비안나) 신원섭(바오로)

☎ (053)572-4200 명문약국 4층 내당동 대구N타워 4층(내당역 1번 출구)

원장/전문의 심지훈(토 마 스) 이 병희(테오필로)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정학모 루가 신부 2015년 12월 20일
- 서정덕 알렉산델 주교
 2001년 12월 22일

교구 | 대리구 알림

2024년 1월 카나혼인강좌

일시: 2024.1.21(일) 9:30~17: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 참가비: 2인, 5만원(사전 신청) /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1.11(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된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지영(안젤라) 문의: 교구법원, 253-9550

계산성당 연도실 조리사 채용

모집부문: 조리사 1명, 주방보조 1명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 세부사항 면담 후 조정 서류접수 후 개별통보

마감: 12,31(일) / 문의: 254-2300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 여, 비신자 포함 /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대구가톨릭대 한국어교육학과(석사) 모집

기간: 12.18(월)~29(금) 2년(4학기)과정, 학위논문 없음 한국어교원2급·석사학위 취득 남산동 주1회(수) 저녁 수업, 온라인 70% 문의: 660-5254 / (010)7600-3595

2024학년도 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12.18(월)~29(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1,3(일반) / 850-3508(교육) / 660-5251~4(특수) https://www.cu.ac.kr/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12.18(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문의: (010)3515-7555

모집: 전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신입생 모집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 프로그램

405차 ME주말: 1.19(금)~21(일)

406차 ME주말: 2.23(금)~25(일)

장소: 한티피정의 집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 가능

한국여기회 '여기애인' 원고 모집

주제: 봉사, 자선, 이웃사랑의 체험수기 분량: A4용지 2매 이내, 11P 제출: min8641@hanmail.net 소정의 원고료 제공 / 연락처 필수

송년 감사 미사

일시: 12.30(토) 14:00~17:30

장소: 월막피정의집

차량: 현대백화점-청라언덕-성서홈플러 스-설화명곡역 / 문의: (010)9045-0191

남대영기념관 대관 안내 및 예성상담센터

대관: 전시, 소공연, 학술 등

문의: 629-1117

센터: 심리상담 및 휴먼모래놀이,

수지에니어그램

문의: 657-1295

성 로베르토 웰-엔딩 연구소 강좌

기간: 1.6~3.3(토) 10:00~12:00(8회) 장소: 계산문화관 3층 본 연구소

내용: 삶과 철학; 고전 깊이 읽기

대상: 15~18세 청소년 / 강사: 박경주 박사

문의: (010)7439-5454

∮♪ 곽재혁신경과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前대구가톨릭대학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건어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 (053)255-9077 010-9447-5193



053)795-2211 · 010-6572-2233

대구시 송구 날구벌대로 1970(남산동) 청라센트럴파크 상가 3층 307호 김 경 임 (아 네 스)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억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대한요양병원

재활전문/암/노인성질환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297(남산동) (경북여고 건너) Tel, 053,218,8800 병원장 김 봉일(파우스티노)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형외과전문의 배역된(아오스팅), 배상근(베드로), 김원희

정형외과 전문의 배역두(아오스팅).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임송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